



BIFC에서 보낸 5년 부산사람 된 서울내기

〈부산국제금융센터〉

부산서 지낸 5년을 돌아보며

“밥 먹었나?”와 “밥 먹었노?”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두고 서울내기들끼리 설전이 있었다. “니 뭐하노?”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밥 먹었노?”가 맞다는 나를 논리적인 주장이 있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부산사람이 “니들 뭐하노? 밥은 먹었나?” 하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말 그대로 ‘서울내기’인 내가 회사를 따라 부산으로 이사 온 첫째 겨울 이야기다.

부산으로 이전했어도,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동안엔 여기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생각할 일이 별로 없었다. 서울 사무실을 통째로 떠 온 것처럼, 일도 사람도 그대로였다.

퇴근 후엔 부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부산의 맛집, 명소들을 공유하는 사내 게시판도 있고, 누군가 새로운 곳을 발견해서 정보를 올리면 또 다른 직원들이 그곳을 방문하곤 했다. 얼마나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녔던지, 광안리 회사 숙소 근처에 사시는 친척 어른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덕분에 동네 분위기가 밝고 활기차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

부산 명소를 목록으로 만들어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직원도 있었는데, 그 직원은 새벽 경매시장까지 다녀왔으니, 휴가철도 아닌 때에 부산 여기저기서 보이던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 우리 직원에 아니었을까.

등산을 좋아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부산엔 산도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낯시를 좋아하는 선배는 주말 새벽낙시뿐 아니라, 저녁 퇴근길 낚시 이야기도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엔 같이 점심을 먹던 동료가 오후

에 휴가를 내고 송정에 갈 거라고 했다. 부산에 와서 서핑을 배웠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출근길에 장비를 차에 싣고 왔다는 것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로 송정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바다에서 서핑을 할 수 있다니, 이젠 정말 부산은 보람이야” 하고 같이 웃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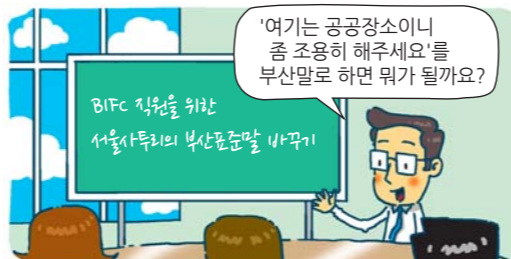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 전사한 유엔군을 추모하며 전 세계인이 매년 11월 11일 11시에 1분 동안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묵념하는 ‘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추모식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캐나다 참전용사가 제안해 2007년부터 참전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추모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고, 평화를 기원하는 전세계인의 성지가 된 부산이 대단한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회사 따라 부산으로 이사한지도 어느새 5년. 그동안 회사 부근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BIFC 건물 하나만 우뚝 서 있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호텔과 오피스텔, 극장, 실내 동물원까지.

상점들도 차례로 문을 열면서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가고,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건물을 올리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서인지, 이 변화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처음엔 주말마다 서울에 다녀왔지만 지금은 부산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동안 부산에 정착한 사람도 많고, 부산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들도 많으니 사무실 풍경도 달라져서, 처음처럼 부산말을 놓고 무엇이 맞는지 토론하는 일은 없다.

서울에 살 때는 바다를 보려면 강릉까지 가



야했는데, 지금은 퇴근길에 산책하듯 광안리 해변을 걷는 호사를 누린다. 카페에 앉아 먼바다를 보기도 하고, 모래사장에 올라서서 한참 동안 파도소리를 듣기도 한다. 휴가를 내거나 주말 시간을 내어이나 볼 수 있던 바다를 이렇게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

파도소리 들으러 가는 광안리 해변뿐인가. 따뜻한 날 책 한권 들고 올라가는 황령산 바람고개, 석양 노을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언덕... 여기저기 단골 장소가 생긴 걸 보면, 이제 내게도 부산이 여행지가 아닌 거주지가 된 것 같다.

오늘 퇴근길엔 세탁소에 들를 예정이다. 내 얼굴만 보고도 바로 옷을 찾아 주시는 주인 아주머니가 언제 나처럼 어깨를 토닥토닥하며 반겨주실 게다.

김화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계신용지원처 과장)

■ BIFC 입주 기업 현황

한국거래스(50~62F)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거래

한국자산관리공사(40~47F)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

한국에탁결제원(5, 36~39F)

국내 유일 증권중앙에탁결제 기관

한국남부발전(30~35F)

하동 화력본부부 주력으로, 국내 총 발전 용량의 12% 차지

한국주택금융공사(2, 7, 12, 23~27F)

장기모기지,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수행

주택도시보증공사(6, 10~11, 15~19F)

주택보증 전담기관, 업무 및 상품안내, 실시간 입찰, 매각정보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21F)

무역 증권, 공적 무역 신용제도 운영, 무역 보험 제도 안내

신용보증기금(14F)

신용보증, 기업신용정보 관리, 어음 부도방지 보험, 경영지도 컨설팅

한국수출입은행(20~21F)

투자 전문 금융기관, 해외투자, 대외경제협력, 남북협력기금

캠코선박운용(53F)

선박의 취득·대선, 자금 차입 및 자체발행, 취득 선박의 관리, 매각 업무 수행

청도국제공상중심유한회사(53F)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63F)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교육연구원

국제금융연수원(52F)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관

신한은행(52F)

코스콤(52F)

옛 한국증권전산, 증권업무 전산화, 시스템 개발, 컨설팅, 전산교육 서비스

금융투자협회(52F)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법령 및 리서치 자료, 회원사 정보 제공

경제진흥원(52F)

금융사업조사 및 연구, 금융도시 기반조성, 금융인력 양성

대한상사중재원(52F)

국내 및 국제 민사상 분쟁 해결 중재기관, 중재절차, 알선, 조정



한국해양진흥공사(13F)

부산파이낸스센터AMC(63F)

BIFC 자산관리회사.

한국선박금융(22F)

KSF 선박금융(22F)

푸른바다 어린이집(2F)

한국증권금융(9F)

국제식물검역인증원(9F)

*은행 지점 입주 : NH농협은행(2, 8~9F), KDB

산업은행(22F), 부산은행(9F), 우리은행(2F), KB

국민은행(BIFC물 1F)

■ IFC 부산

오피스텔 건물(지하 7층 지상 49층) 783세대
위워크(WeWork, 11~15F) : 글로벌 공유오피스

아바니호텔(지하 7층 지상 35층)

300객실을 갖춘 5성급 비즈니스 호텔

IFC BUSAN물

드림씨어터(1,750석 부산 최초 뮤지컬 전용극장), 증권박 물관(2F), 캐니언파크(국내 최대 규모 실내 동물원), 카페, 레스토랑, 프리미엄 아울렛, 수입자동차 전시장

반석 요양 보호사 교육원

1월 개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종일반/야간반/자격증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생 모집(1월 개강반)
▶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산후도우미 파견)제공 - 정부지원/일반
반석바우처센터운영/대상: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요양보호사 취업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반석방문요양센터(장기요양 1~5등급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제공)
반석복지용구(복지용구판매/대여/정부지원)-전동침대/월제어 외 다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요양상담 ▶ 요양보호사 취업상담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 담 남구 용호동 농협 하나로마트 용호점 100M전
☎ 621-1488~9 / 010-2856-5482

참좋은요양보호사교육원

1월 개강반 모집
(주간반/야간반)

★ 국비(무료)/일반 과정
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식비+교통비), 훈련수당 지급

★ 21,22,24,25회 국가고시 전원 합격!

★ 부산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직무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정 직무교육기관

637 5350
637 5348

새참빛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생 수시모집(주간반/야간반/자격자반)

강사 수시 모집
2008년 개원 우수한 강사진 최다 합격 보장

새 참 빛 재 가 복 지 센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무료 등급신청 상담
유엔교차로 석포농협 옆 파riba게트 2층
☎ 623-0698 / 010-5600-3763